

宋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漢詩小考

洪 瑀 欽

〈目 次〉

- | | |
|---------------------------|---------------------------|
| 一. 緒 言 | 四.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意義 |
| 二.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詩를 酬唱한 理由 | 五. 結 言 |
| 三.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內容 | |

一. 緒 言

尤庵 宋時烈(1607~1689)은 睡翁 諱甲祚의 아들이다.

睡翁은 尤庵이 출생하기 몇일 전, 꿈 속에서 孔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뒤 12세가 된 尤庵에게 學統淵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朱子是 후세의 孔子이며; 栗谷은 후세의 朱子이니; 孔子를 배우려고 하면 마땅히 栗谷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尤庵 역시 穎悟함이 뛰어나고 志氣가 보통이 아니며 器局과 度量이 탁월하여 부친의 훈계를 다음속 깊이 아로새겨 부친으로부터 栗谷의 <擊蒙要訣>을 받아 독과한 뒤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능히 사람이 될 수 없다」란 要義를 터득하였다. 그리고 栗谷의 弟子인 沙溪 金長生(1548~1631)과 그 아들 愼獨齋 集(1574~1631)의 門下에 나아가 <近思錄> <心經> <家禮> <朱子全書>를 專習하여 朱子の 學術思想과 孔子의 春秋大義를 通曉하고 「敬·直」과 「大一統」思想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 本 論文은 1994년 8월 10일 中國北京大學 電敎中心會議室에서 開催된 「宋子學與儒學國際學術大會」에서 發表한 <宋尤庵與其孫疇錫酬唱之漢詩小考>의 翻譯文임.

27세 때에 生員試一等에 급제하여 敬陵參奉과 王子師傅에 제수된 뒤 司諫院執義·忠州牧使·別諭·承政院同副承旨·侍講院贊善·吏曹判書·判中樞府事·右議政 등의 관직을 수행하는 일면 講學琢磨·入侍獻策·理氣論辨·禮論是非·北伐淸朝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忠憤 慷慨·喜悲交錯·勝敗無常·茹苦含辛하는 生活을 하게 되었다. 68세에 이르러서는 彈劾을 입어 파직되고 멀리 유배 圍籬安置되었으며 73세 때는 유배지가 巨濟로 옮겨지고 74세 때는 다시 淸風으로 옮겨졌으나 멀리 않아 석방되어 華陽洞으로 돌아왔다. 77세 때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갔다가 또 華陽으로 돌아 왔는데 여러 번 이와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다가 83세 때에는 마침내 濟州로 貶斥, 圍籬安置되었다가 다시 拿鞠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井邑에 이르러 御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¹⁾

尤庵은 그의 문집인 《宋子大全》 715卷과 《拾遺》 9卷, 《續拾遺》 1卷을 남기고 있다.

<宋自大全>에는 詩集 4卷 總 610題 851首²⁾가 있으며, <拾遺>에 詩 14題 15首, <續拾遺>에 詩 7題 7首, 計 631題 873首의 詩가 실려 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德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다」(孔子)

「불평함으로 인해 울린다」(韓愈)

「마음이 짝 차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歐陽修)

「충만하고 발랄 울적하면 밖으로 드러난다」(蘇軾)

등을 통해 생각해 보면 <宋子大全>에 실려 있는 바 그 浩瀚龐大한 산문과 운문은 모두 이 英俊豪健한 思想家 尤庵의 胸中洪爐에서 충만발울하여 겉으로 들어난 「道德」과 「不平」의 표현이다. 尤庵은 일찌기 268회나 반복해서 말하되

「尤翁은 즐겨 詩를 읊는 사람은 아니다」³⁾고 했으며,

韋旭昇教授도 말하되 ;

1) 《宋子大全》에 실려있는 《尤庵先生年譜》 1~83세까지의 사실을 참조

2) 張菊玲 教授在 《儒家理想人格의 藝術再現》 (’93EXPO0紀念 宋子學國際學術發表大會論文要約集) 中所記의 「八百四十一首」, 可能是打字錯의.

3) 《宋子大全》 卷之四, <次康節首尾吟韻> 百三十四首詩首尾兩句.

「尤庵은 文學을 載道の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文章의 꾸밈과 예술형상 및 감성표현 등의 요소가 문학에서 작용함을 중요시하지 않았다」⁴⁾라고 했다.

두 분의 말은 모두 맞다. 尤庵은 실제로 「즐거 시를 읊음」의 純粹詩人은 아니며, 文學을 載道の 도구로 본 經學家, 禮學家, 政治家였다.

그러나, 「말에 꾸밈이 없으면 멀리 전해지지 못한다」⁵⁾와 같이 尤庵의 文章은 자연스럽게 내용에 따라 형식을 부여하여 道와 文을 일치시킴으로써 영원히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 필자가 尤庵의 文學 가운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尤庵이 그 손자인 疇錫과 酬唱한 漢詩>이다.

이 문제를 더듬어 보고자 한 동기는 두 가지다.

첫째는 尤庵 韓詩 가운데 손자 疇錫에게 준 시의 수가 특별히 많은 점이다. 헤아려 보면 모두 631題 873首 가운데서 82題 94首나 된다. 漢詩歷史上 朋友 先後輩 師弟之間에 있어서 항상 서로 次韻酬唱한 사실은 있으나 조부가 손자를 위해 이와같이 많은 수의 詩를 지은 예는 종래에 들어 보지 못했다. 이것은 아마도 空前絶後의 특수현상일테니 마땅히 주의하여 살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尤庵의 文學世界는 실로 浩瀚廣泛하며 深邃不測하여 初學者의 立場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때문에 마땅히 먼저 이와같이 일부분의 자료를 감상한 다음에 천천히 그 광범심수한 세계에 접근함이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본 논제에 대해서 <尤庵이 그 손자 疇錫과 詩를 酬唱한 理由>, <尤庵이 그 손자 疇錫과 詩를 酬唱한 內容>, <尤庵이 그 손자인 疇錫과 酬唱한 詩의 意義> 등 3단락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二.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詩를 酬唱한 理由

尤庵의 <<年譜>>와 漢詩 및 기타 자료를 살펴보면 尤庵이 특별히 그 孫子 疇

4) <情中之理>—談尤庵先生的祭文—(93 EXPO紀念 宋子學國際學術發表大會論文要約集)

5) 陳介白著 <修辭學研究>(台灣, 信誼書局) p.2 「周敦頤曰, 文辭藝也, 道德實也, 篤其實而藝者 書之, 美則愛, 愛則傳焉, 故曰, 言之無文, 行之不遠。」

錫과 많은 詩를 酬唱한 이유는 아마 다음 4가지 일 것 같다.

I. 아들에게 베풀 사랑을 손자에게 베풀

尤庵은 그 누구보다 그 아버지이신 睡翁의 敦厚한 愛育의 情과 敎學의 熏계를 깊게 받았던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자신이 자신의 아들에게 해야 할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尤庵은 夫人 韓山李氏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으나 불행하게도 모두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뒤를 이를 아들이 없었다.

《尤庵年譜》三十一歲條에 그 아들 純이 죽은 뒤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純은 태어나자 穎悟하여 일찍 文學에 능통했다. 죽게 되자 先生은 매우 痛惜하여 九龍村 가까이에 장례를 지내고 매년 죽은 날에 제사를 지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잔의 단술로 비록 유배기간의 창황한 가운데서도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그 무덤이 허물어지자 사람을 보내어 加土를 했으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문을 남기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尤庵이 그 親子인 純에 대한 愛情이 얼마나 강렬했으며 또 그 죽음에 대해 얼마나 悲痛哀惜한 마음을 가졌던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늘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

後嗣를 얻기 위해 두번의 後室을 두었으나 後室들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다.

최후로 부득이 再從兄의 아들 基泰를 맞아 아들로 삼았는데 基泰는 殷錫·疇錫·茂錫·晦錫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사실이 이와 같으니 尤庵과 여러 손자들과의 관계는 直系血統上의 關係가 아니었다. 그러나 <示兒孫>⁶⁾, <棘中雨後吟示兒孫>⁷⁾, <丁巳初秋示諸孫>⁸⁾, <示兒孫輩>⁹⁾, <西山寺示兒孫>¹⁰⁾, <春回示兒孫>¹¹⁾, <自警吟示兒孫>¹²⁾,

6) 《大全》, 卷三一.

7) 同上, 卷之二.

8) 同上.

<示兒孫>¹³⁾, <漫吟示兒孫>¹⁴⁾, <己未新元書示諸孫>¹⁵⁾, <吟兒諸孫>¹⁶⁾, <別兒孫後吟寄> 등의 다수 詩篇을 통해 표현한 心像을 보면 尤庵의 愛孫之心은 참으로 敦厚深遠하고 지성스럽기 가이 없다. 이것은 바로 親子인 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養孫들을 사랑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疇錫의 才能과 氣質의 優秀性

尤庵의 최대 희망과 이상은 바로 朱子의 學術思想을 학습하고, 孔孟의 春秋大義를 體得하여 名分이 확립된 王道政治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 자신이 계속해 추구하고 실천함은 물론 그 兒孫들에게 대해서도 성심성의로 그 理想에 대한 道理와 實踐의 方法에 대해서 敎示하였다.

그러나 그 손자들은 오로지 道心만을 가진 生而知之의 사람들이 아니라 人慾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는지라 제대로 이 祖父의 敎訓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外內孫曾餘二十 人言蘭玉鬱成林.
我衰未課詩書業, 渠懶甘爲牛馬襟.
誰紹圭庵西阜學, 難同習諍睡翁衾.
如能一一知無忝, 世上閒愁不到心.

<示諸兒孫>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태만하여 「소나 말의 마음을 달갑게 여김」의 兒孫마저 있었다. 만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바 「蘭玉」과 같다고 하는 20여명의 兒孫들 가운데 누가 능히 朱子學을 통효하여 睡翁公이

9) 同上, 卷之三.

10) 同上.

11) 同上, 卷之四.(127~167同上.)

12) 同上.

13) 同上.

14) 同上.

15) 同上.

16) 同上.

전해 온 家統과 學統을 계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근심스럽기 그지없고 탄식해 마지 아니할 일이었다.

그러나 「群鷄一鶴」이란 말과 같이 그 20여명의 內外兒孫 가운데 다행히도 第二孫인 疇錫이 있었다.

老年沈病惟耽樂, 少日壯心都作灰.
只有小孫才可望, 却排多悶意常開.
莫於城關隨人去, 肯向施嬌著眼來.
二者之關能透得, 追蹤先古儘恢恢.

<夜坐書懷示疇孫>

我教小孫不以身, 宜其邈邈此諄諄.
余言而自聖賢說, 汝質幸非愚下人.
趙相采葑豈下體, 郢書舉燭開賢臣.
雖云夫子未於正, 於爾何妨德日新.

<其二>

尤庵은 생각하되, 그 鬱成林한 20여명 孫子들 가운데 才能面에서 希望이 있고 氣質上에 있어서 어리석거나 하등급이 아니며 그리고 스스로 聖賢을 말하고 明德日新할 수 있는 사람이며 尤庵 自身の 後嗣에 대한 번민을 덜어 줌과 아울러 朱子學과 睡翁公이 전해 온 家統을 계승할 兒孫은 다만 이 한 사람의 疇錫 뿐이라고 여겼다.

이로 인해 특별히 愛顧重視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戀戀不忘하여, 詩로써 學問의 道理를 勸勉하고, 詩로써 出處의 어려움을 경계하며, 詩로써 自然의 아름다움을 酬唱하고 詩로써 祖孫間의 愛情을 交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祖父가 그 孫子를 사랑한 하나의 象徵이라 할 수 있으니, 讀者로 하여금 무궁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III. 祖孫間의 師弟와 同志意識

尤庵이 43세 되던 해 疇錫이 出生했는데, 4세 때 懷德蘇堤 故家에서 父兄들과 함께 祖父(尤庵)에게 朔望禮를 드렸다. 15세 되던 9월에 尤庵이 그 第二孫을

위해 戴冠式을 거행했는데 隴西의 尹公을 執典賓으로 모셔서 「疇錫」이란 이름을 지어 주고 字를 「敍九」라고 하였다.¹⁷⁾

그 해 11월에, 尤庵은 드디어 第二孫인 疇錫을 데리고 집을 떠나 俗離山 山寺에 들어가 疇錫과 함께 專心 讀書을 하였다.

先生の學問에 대한 노력은 늘어서 더욱 돈독하였으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집에 있을 때에는 매양 번잡한 일 때문에 專心하여 글을 읽을 수가 없었으므로 仲孫(疇錫)을 데리고 俗離山에 들어갔다. 그러나 遠近의 선비 가운데 그를 찾아와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었다.¹⁸⁾

이때부터 尤庵과 疇錫은 祖孫의 緣分을 초월하여 師弟關係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疇錫은 아직 15세의 少年이었으므로 祖父의 遠대한 理想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집을 그리워 하는 표정을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尤庵도 이 어린 孫子の 純眞素樸한 마음을 看破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剖破籬籬直大方, 此心無界亦無疆.

如今莫作還家夢, 隨處并州作故鄉.

<示疇孫兼奉聖彌求和>

이 詩는 疇錫으로 하여금 開眼見明하여 浩然之氣를 깨달아 大丈夫가 되게 하려는 箴言이었다. 大丈夫가 될 수 있는 才能과 氣質을 가진 疇錫은 이 詩를 보자마자 祖父의 깊은 뜻을 바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스승(祖父)을 따라 여건의 如何함을 따지지 않고 專心讀書하였으며 또한 艱難險苦를 가리지 않고 祖父를 侍奉 하였다.

共守荊園久不歸, 如伊誠孝古來稀.

潯渠婦子空凝佇, 日暮山村不掩扉.

<次疇孫咏懷>

17) <年譜> 五十八歲條.

18) 同上註 4).

貶謫된 祖父(尤庵)를 모시고 配所에 갔으니 몸은 비록 荊棘園籬의 荊獄에 놓이게 되었으나, 지극히 정승리스런 孝心으로써 祖父를 侍奉하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妻나 자식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와같은 정성은 祖父로 하여금 「古來에 드문 誠孝」라고 感歎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 尤庵과 疇錫의 관계는 祖孫 師弟로서의 義理를 초월하여 「同志」的 關係에 나아가게 되었다.

祖孫・師弟・同志였던 이 두 사람은 가르치고 배움에 게으리지 않았으며, 사랑과 존경이 끝이 없었고, 괴로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尤庵은 즐거움을 읊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하였으나 詩를 읊지 않을 수 없었다. 學問이 進歩됨에 대한 기쁨, 이별하여 서로 그리워하는 情感, 花朝月夕의 美景, 黨爭 勝敗의 喜悲, 流配生活의 困厄……等등의 경우를 당하면 尤庵은 자연히 詩을 읊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尤庵은 다소 感傷의인 태도로 말하기를

溪水雖云永, 何如我爾思.
霜來千葉樹, 筒有五言詩.
水冷魚鱗戰, 天長雁影遲.
音書憑不得, 清夜夢爲期.

<還次疇孫>

라고 하였다. 尤庵은 자신과 疇錫간의 祖孫으로서의 情誼와 師弟나 同志로서의 義理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보다 더 永遠不變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 그리워하며 詩를 지었고,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편지조차 받을 수 없으면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三.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內容

우리들은 위에서 尤庵先生의 年譜와 몇 편의 詩를 통하여 尤庵과 疇錫이 그렇게 많은 편수의 詩를 酬唱한 詩의 內容을 살펴보았다.

韋旭昇 教授는 尤庵詩 全體의 內容의 傾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주된 요점은 시를 통하여 그의 理學思想과 朱子學的 人生觀 및 學問態度를 表述한 것이다.¹⁹⁾

金學主 教授의 <尤庵의 詩觀과 詩>²⁰⁾ 孫玉石 教授의 <宋時烈詩의 精神探論>, 汪中 教授의 <擊壤同聲>, 張菊玲 教授의 <儒家理想人格의 藝術再現>에서도 尤庵詩의 內容과 儒家思想의 相關性을 學論하였다.²¹⁾ 이 분들이 말한 바는 모두 옳은 것이다.

本稿의 緒言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尤庵은 그의 父親 睡翁公으로부터 「朱子는 후세의 孔子이며; 栗谷은 후세의 朱子이니; 孔子를 배우려고 하면 마땅히 栗谷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家訓을 받아 拳拳服膺하고 一以貫之한 思想家이다. 그래서 그의 哲學・文學・禮論・政策……等等의 一生 事業 중에서 儒家思想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內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란 바로 「詩는 절대로 思想을 記述하는 哲學敎本이 아니며, 情感을 表現하는 藝術品」이라는 점이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詩를 통해 표현되는 思想은 이미 詩人 자신이 가지고 있는 氣質과 性情의 洪爐를 통과하면서 鎔鑄醇化되어 表出된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詩는 「情動於中而形於言(者)」<毛詩序>이며; 「氣之動物, 物之感人, 搖蕩性情, 形諸舞詠(者)」<詩品序>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바 尤庵이 그 손자 疇錫과 酬唱한 詩의 根本內容은, 純粹한 思想・哲學의 內容이 아니라, 尤庵 자신이 가졌던 性情과 思想이 藝術的 鎔化過程을 거쳐 表現된 情感上的 內容이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몇 개의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I. 勸勉學業

尤庵의 生平을 살펴보면 尤庵은 血緣上的 家統과 學問 淵源上的 學統이 一

19) 同上註 4).

20) <尤庵思想研究論叢>

21) <’93EXPO紀念 宋子學國際學術發表大會論文要約集>, 忠南大學校宋子學研究財團.

致됨을 매우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親가 죽고 後嗣가 없게 되자 從兄의 아들을 맞이하여 血統上的 後嗣를 繼承시켰고, 또한 자신이 繼承해 오던 學統을 傳授하기 위하여 詩로써 그 손자 疇錫의 學業精進을 심히 督勵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詩로는 <戊午十月送疇孫歸懷德既歸以沿道作百六韻見寄聊步還示之>(卷一), <次疇孫上山房時送中韻>(卷二), <示疇孫>(卷四), <書懷示疇晦二孫>(卷四), <次疇孫韻>(卷四), <次疇孫韻兼示晦孫>(卷四) 등등 여러 篇이 있다.

少小望孔牆, 冀升堂入室.
屈首受經訓, 絕意事干謁.
守簞食瓢飲, 唾奴顏婢膝.
能與天地參, 諒在勉吾學.
日取周孔書, 仰思而俯讀.

.....

發憤亟刊落, 專心聖轍迹.
只將四子書, 兀兀窮晨夕.

<戊午十月送疇孫歸懷德既歸以沿道作百六韻云云>

「孔子 牆園 속의 孔子 堂室」은 儒家의 선비들이 指向하던 最後 目標다. 이 目標 地點은 玄妙不測하고 荒誕無稽한 極樂世界나 天堂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現實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宮牆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 牆園 속으로 들어가서 그 堂室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孔子 이후의 인류 역사상 孔子의 堂室에 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自強不息하였을 뿐이다.

尤庵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疇錫에게 이 目標을 追求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態度(屈首受經訓, 絕意事干謁)와 방법(日取周孔書, 仰思而俯讀, 兀兀窮晨夕)을 가르치고 있다.

窺觀周太極, 沈潛張理窟.
況復程朱書, 聖訓極揮發.

漆園雖復生，亦且屈其膝。
而荀與楊輩，汗流顧且蹙。
惟我長夢寐，濂伊泊閩越。
遊泳復沿溯，不覺港之絕。

<次疇孫上山房時送中韻>

孫玉石 教授는 「우리가 宋時烈 詩歌의 精神世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儒家學說과 宋明理學을 매우 尊崇하고 理學의 精髓에 대해 執着하여 追求한 大儒이면서 政治家라는 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위에서 인용한 詩 속에 吟詠된 宋代 理學家들은 尤庵이 가장 尊崇한 人物들이다. <太極圖>를 그려 宋代 理學의 端緒를 마련한 周敦頤, <西銘>에서 「理一分殊」(理窟)를提起하여 宋代 理學의 精髓를 확충한 張載, 周敦頤, 張載의 理學을 整理하여 朱熹에게 傳授한 程顥·程頤 兄弟, 孔孟 이후의 모든 儒學을 集大成한 朱熹 등은 尤庵의 心靈世界에서 활약한 「後世의 孔子」들이다. 그래서 尤庵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둘째 손자 疇錫에게 이 「後世의 孔子」들을 열심히, 平易하게, 諄諄히 紹介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 「後世의 孔子」들을 얼마나 尊重하며(惟我長夢寐), 그들의 學術과 精神世界의 一面을 어떻게 追求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고, 老莊이나 荀子·楊朱·墨翟 등의 異端思想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그러나 孔孟과 周張程朱가 남긴 經典이 廣泛深遠하고 奧妙精微하여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尤庵은 疇錫에게 酬應하는 詩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經訓無如熟復過，最嫌浮念易成魔。
夜思晝讀疑全釋，寸積銖加得漸多。
聖道只今悲委草，己和須復劇鉏禾。
從茲直向朱門去，肯爲全身學李和。

<次疇孫韻>

懶怠한 마음을 이기고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생각하여 반복 학습하며 한걸음씩 前進한 뒤에야 奧妙精微한 「經訓」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시들과

황폐해진 「聖道」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尤庵은 이어서 이렇게 督勵하기도 하였다.

嗟爾年芳學未成，誰禁意馬脫轡行.

難於隱歲心無愧，當不選時患已生.

先世有文兼有行，汝身宜重不宜輕.

古今多少爲君子，一一皆從強制情.

<示疇孫>

이 詩를 보면, 尤庵은 인간의 自由로운 생각(脫轡한 意馬)을 「魔」라고 인식하였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만약 脫轡한 意馬를 따라 간다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우환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尤庵은 疇錫의 學業 完成을 위해서, 몸가짐을 정중히 할 것과 굴레를 벗어나 放縱하려는 意馬를 힘써 통제하도록 勸勵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嚴格한 敎訓이지만, 이 嚴格한 敎訓 속에 뜨거운 情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詩를 읽는 讀者는 陳腐·乾燥한 맛이나 壓迫하여 엄매는 뜻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II. 別離懷憶

尤庵은 「尤庵이 詩 읊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나, 送別한 當時에는 詩를 읊었네」²²⁾라고 말한 바 있다.

비록 尤庵이 「一一皆從強制情」과 最嫌浮念易成魔」를 주장하고 自由情感을 節制하는 道學家이지만, 사랑하는 家族이나 友人을 送別할 때에는 비록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惜別의 情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끝내 억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情況에서는 그도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惜別의 情을 詩로 읊으므로써 마음의 安靜을 回復할 수 있었다. 尤庵이 疇錫과 酬唱한 詩 가운데 이별한 상황에서 서로 그리워 한 詩들은 모두 이와 같은 原因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部類의 詩로는: <乙丑三月之暮余送疇孫西上心不自聊遂携小壺往門長于宋村老小頗集環坐談話日斜而歸敢次晦翁三月與諸兄眞率之之韻求和于

22) 《宋子大全》 卷四, <次康節首尾吟韻>.

諸宗>(卷二), <送疇孫北行>(卷二), <憶疇孫>(卷二), <疇孫歸後戀而作>(卷二), <送疇錫兼示仲淳>(卷二), <送疇錫還朝>(卷四) 등의 여러 편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몇 首를 選하여 尤庵의 別離懷憶의 情感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今朝積雨霽, 嘉木已繁陰.

罔罔別我恨, 悠悠憂世心.

<乙丑三月暮余送疇孫西上心不自聊云云> 中 一部

今朝送爾去, 去住意茫然.

秋風吹雁急, 何日著歸鞭.

<送疇孫北行>

이 두 篇의 詩는 모두 賦法으로 疇錫을 送別한 뒤의 寂寞空虛하고 罔罔悠悠하고 憂愁悲恨한 情感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詩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을 背景으로 하여 清新하고 淡雅한 맛을 더하였고, 뒤의 詩는 가을 바람에 나는 기러기를 背景으로 하여 蕭瑟하고 緊迫한 기운을 더하였다. 뿐만 아니라, 「悠悠憂世心」과 「何日著歸鞭」 兩句 가운데 온축된 愛情의 心象은 平淡素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意趣는 無窮無盡하여 讀者로 하여금 「言外有意」의 美感을 實感할 수 있게 한다.

戀爺之子憶夫妻, 三月戀渠望白題.

匹馬行行還過嶺, 計程今日到蘇堤.

<疇孫歸後戀而作>

簾風吹雪別時飛, 漠漠閒雲掩日暉.

行路誰知難蜀道, 愁邊征馬任駢駢.

<送疇錫兼示 仲淳>

앞의 두 詩가 送別 직후의 어찌할 바 모르는 空虛寂寞感을 묘사한 것인데 비해, 2首의 詩는 送別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旅路 중에 있는 疇錫의 情況을 마

음에 두고 읊은 것이다.

말을 타고 行路 중에 있는 사랑하는 손자가 길에서 무슨 危難이나 만나지 않는지? 지금쯤 어느 산길을 지나거나 혹은 어느 나무를 건너고 있는지? 그곳 旅舍에서 어떻게 休息하는지? 日程을 셈해 보면 故鄉 蘇堤에 도달했을 것이나 과연 도달하였는지? 이와 같은 心像은 마치 閩中少婦가 집을 떠나 行路 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는 淸純哀憐의 心像과 비슷하다.

우리는 宋朝 鄭谷의 <題邸間壁>이라는 시를 欣賞함으로써 이러한 心象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醺醺香夢怯春寒, 翠掩重門燕子閒.
鼓斷玉釵紅燭冷, 計程應說到常山.

앞의 詩와 이 詩의 心像을 비교해 보면 自然히 換骨奪胎의 美感을 느끼게 된다. 이 詩에 표현된 背景 情況은 앞의 詩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손자가 旅行 중에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는 感情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狂風吹雪의 惡天候를 무릅쓰고 집을 떠나 旅行하고 있는 疇錫, 이 사랑하는 손자의 乘馬行路는 아마도 魏武帝 曹操의 太行山 行征보다 더한 苦難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行路의 어려움을 이기고 말에 채찍을 가하여 쉬지 않고 달리고 있겠지? 疇錫을 送別한 뒤의 尤庵의 心目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戀戀不忘하면서 疇錫이 간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尤庵의 離別에 대한 感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爾歸鄉土我仍留, 兩地相望一種愁.
相得書窓今寂寞, 卷中眞趣可消憂.

<示疇係>

薄暮幽吟坐小堆, 池荷時遣暗香來.
相應城市喧嗽裏, 爾亦思歸恨不裁.

<憶疇孫>

歸鄉한 疇錫을 생각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어 憂愁의 寂寞함에 잠겨 있게

되는데, 이런 때에는 讀書가 憂愁를 달래는 方法이 되기도 하였다.

혹은 해 저물녘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연꽃의 향내를 맡으면서, 시골벽적인 서울에서 「恨不裁」의 鄉愁에 젖어 있을 疇錫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隨柳芳花莫我從，嶺雲江水阻音容。

書中不盡心中事，一紙才封復一封。

<同上，第二首>

疇也辭歸在漢師，爾來三月我西悲，

夢中宛爾開門入，柳下依然挾冊隨。

<憶疇孫>

酒澆盈樽虛待爾，文成在紙對論誰。

相思切後還歸正，恆與求心最克治。

<憶疇孫>

老夫非復別離時，送爾那堪淚暗垂。

最怕佛思何以報，身心塵刹是名爲。

<送疇孫還朝>

尤庵은 그 孫子 疇錫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祖父였기에, 혼자서 꽃이 활짝 피어있고 버드나무가 울창한 언덕에 이르렀다가 문득 愛孫 疇錫이 옆에 없음을 깨닫고, 茫然히 고개 위의 구름과 강물을 바라보며 그 너머 어디엔가 있을 疇錫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時人不知之樂」²³⁾을 써서 그에게 부쳐 보내었는데, 어떻게 쓰더라도 충분히 表現되지 않았기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孫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나깨나 疇錫을 잊을 수 없었고, 꿈 속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와 책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疇錫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 글을 지어놓고, 愛孫이 돌아와 그와 함께 그 文章을 토론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佳肴와 美酒를 준비해 놓고 그를 기다

23) 程顥 <春日偶成> : 「雲淡風輕近午天，傍花隨柳過前川。時人不知余心樂，將謂偷閒學少年。」

렸으며, 어떤 때는 惜別의 情을 억제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尤庵은 「文章辭藻, 藝術形象, 感情表現」 등의 要素가 文學 속에서 행하는 作用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²⁴⁾ 文人이며, 「모든 경건하게 儒學을 믿고 따르는 선비와 마찬가지로, 孔子 이래의 忠孝仁義로써 핵심을 삼는 儒家思想을 가지고서, 자기를 엄격히 지키는 古訓과 處世의 法度를 삼은」²⁵⁾ 儒家思想家이며, 「散文을 쓰는 方法으로 義理 爲主의 詩를 지은 哲學詩人이자 論理詩人」²⁶⁾이며, 「모든 행동을 힘써 절제하여 행하고, 謹嚴敬直하여, 反躬實踐하는 道學家」²⁷⁾였다고 評價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러한 先入感에서 나온 두리몽실한 評價를 옳다고 생각해야만 하는가? 筆者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얼마간의 詩들이 우리에게 明白한 答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尤庵과 같은 偉人은 마치 「橫看成嶺側成峯, 遠近高低各不同」(蘇軾詩)의 廬山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誠虔·嚴格·敬直한 道學家·思想家·論辯家·政治家의 면모도 가지고 있고, 熱情·浪漫·怨恨·愛憎·熱淚가 있고, 辭燥와 情感도 重視하는 詩人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單面的인 特性을 가지고 全面的 特性을 斷定할 수 없다.

III. 玩物感時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物」은 尤庵이 <次康節首尾吟韻>이라는 詩에서 읊은 「詩是閒看草木時」(第125)에서의 「草木」, 「默察昆虫多少時」(第126)에서의 「昆虫」, 「詩是流觀毛羽時」(第128)에서의 「毛羽」 등과 같은 草木花卉나 昆虫鳥獸를 뜻하며; 「時」는 「詩是流觀宇宙時」(第58)에서의 「宇宙」 중에서 時間의 概念을 뜻한다.

尤庵은 「明開兩眼」(第24)하여 宇宙(時間과 空間)의 본질과 형상을 「俛仰」(第20)·「直覽」하고, 草木과 禽獸昆虫의 현상을 觀照하여서 「漫興」을 얻게 되

24) 上註 4).

25) 孫玉石, 上記註 20) 設文.

26) 金學主, 上記論文, p. 369.

27) 張菊玲, 上記論文, p. 236.

면, 비록 「尤庵非是愛吟時」하고는 하였으나 「心生而言立, 言立而文明, 自然之道也」²⁸⁾를 따랐다.

尤庵이 그 손자 嘯錫과 酬唱한 玩物感時의 時로는 <玉溪瀑布次嘯孫韻>(卷二), <次嘯孫韻乙卯春>(卷二), <八月十四夜示嘯孫令和>(卷二), <次嘯咏牡丹韻>, <次嘯孫咏菊>二首(卷二), <丁巳杪秋示諸孫>(卷二), <又詠菊>(卷二), <次嘯晦九日韻>(卷二), <次嘯孫賦蠅韻>(卷三), <次嘯孫松棚韻>(卷三), <丁巳清明次嘯孫韻>(卷三), <臘日思嘯孫>(卷三), <次嘯孫除夕詠懷韻>(卷四), <甲寅元日次次孫韻>(卷四), <次嘯孫元日韻>乙卯(卷四), <次嘯孫咏松韻>(卷四), <七夕次嘯孫韻示道元父子求和>(丙辰), <立春日走筆次嘯孫韻>(卷四), <次嘯孫除夜韻>(卷四), <次嘯孫端陽日所吟>(卷四), <再用嘯孫端午日>(卷四), <次嘯孫籠字韻>(卷四) 등등의 여러 篇이 있다.

이제 이 가운데서 몇 편의 詩를 選하여 玩物과 感時의 類로 나누어 欣賞해보면 아래와 같다.

鵲鵲聲中草不芳，獨憐佳菊媚秋陽。

縱然置在春花裏，猶是清香擅衆香。

〈次疇孫詠菊韻〉

春寒百卉猶蕭索，況時蒼茫歲暮時。

窗外一叢濤小雪，可憐誰與其心期。

＜又詠菊＞

菊花는 屈原의 「朝吟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離騷)과 陶淵明의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飲酒) 등으로 因하여 文人들이 愛用하는 詩畫의 素材가 되었다.

尤庵은 菊花가 鵲鴝가 우는 가운데서 衆草와 함께 피지 아니하고 홀로 가을 햇살 속에서 傲凌霜雪하면서 피는 것을 觀照하고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孤高한 憂患之心을 吟咏하였으며, 또한 疇錫에게 이와 같은 君子의 態度和 精神을 잃지 않도록 일러 주었다.

28) 劉荔思,《丈心雕龍》〈原道〉

誰栽澗畔兩株松, 枝幹縱橫作老龍.
好雨洗來除舊染, 清風吹去爽新容.
蓬萊鶴過祥雲襲, 華嶽人遊端氣濃.
休說歲寒無改節, 鏤烟堪受大夫封.

<次疇孫咏松韻>

役僕投深谷, 撓松補短簷.
愁妨尋戶月, 喜却射窓炎.
失得麟仍覆, 乘除減卽添.
悠然還一笑, 心與海波恬.

<次疇孫松棚韻>

소나무는 줄기가 勁強하고 잎이 항상 푸르며,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論語》> 子罕>라는 句로 인하여 君子的 節介를 象徵하게 되었다.

위에서 든 二首의 詩에서 앞의 詩는 雨洗舊染하고 風吹新容하며 歲寒에도 節介를 바꾸지 않는 소나무라도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封爵을 받은 事例를 읊어서 自身이 세상에 處한 상황을 암시하였다. 두번째 詩는 처마를 뒤덮은 한 가지(枝)의 소나무가 두 가지 效果가 있음(한 가지 效果는 月光을 가림이요, 다른 한 가지 效果는 여름날 햇빛을 가림임)을 읊어서, 疇錫에게 得失・勝敗・利害・增減・喜悲 등의 相對的 認識이 모두 一事의 哲理에서 나옴을 가르치고 있다.

雨餘遙看勢又奇, 嫩綠殘紅杜宇時.
瑤琴彈盡峨洋裏, 只恨難逢古子期.

<玉溪瀑布次疇錫韻>

이 詩의 起句는 飛流直下하는 玉溪瀑布의 氣勢를 읊었고, 承句는 新綠이 점차 짙어지고 꽃잎이 떨어지며 두견새가 구슬피 우는 初夏의 季節的 美感를 읊었고, 轉句는 奇奇妙妙하고 雄壯礚礚한 瀑布의 소리를 伯牙나 鍾子期의 故事를 빌어 읊었고, 結句는 아직도 그 瀑布의 소리를 잘 알아 듣지 못하여 답답한 心情

을 읊었다.

이 詩는 賦와 比의 修辭法을 두루 사용하고 道와 文이 一致되어 「語新意工」함을 이루었고, 「표현하기 어려운 景致를 능히 형상화하여 目前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다함이 없는 뜻을 머금어 言外에 나타낸」²⁹⁾ 詩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感時」類의 詩를 春・夏・秋・冬으로 나누어 欣賞해 보기로 하겠다.

明歲春元此穀朝, 一身猶歎類蓬飄.
炊烟漠漠生材蕩, 華髮垂垂對柳條.
密雪乘風成玉界, 短狐噓氣作虹橋.
如何百結家琴碓, 能使妻兒慰腸枵.

<立春日走筆次疇孫韻>

이 詩는 어느 해 立春날을 맞이한 所感을 表現한 것이다. 立春일은 본래吉日이지만, 신세는 벼슬에서 물러나 방랑하며 苦心慘憺한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날씨가 눈이 내려 索莫蕭瑟하였으니, 그 孫子와 함께 家族의 窮困과 주림을 염려하고 있다.

誰道懷沙行過中, 楚騷風韻儘無窮.
還憑集註分明甚, 更遣誣辭一並空.
戀主危衷蘭蕙泣, 愍時孤憤鬼神通.
千秋競度悲今日, 爭奈江魚腹裏忠.

<次疇孫端陽日所吟>

이 詩는 端午節을 맞이하여 <懷沙賦>와 <離騷>로 말미암아 戰國時代 楚의 忠臣이었던 屈原의 忠憤憂國했던 精神을 읊은 것이다. 또한 屈原의 忠君愛國 정신을 尤庵 자신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白首孤臣北島中, 何須放曠哭途窮.
風鳴竹塢泉聲遠, 月出山城海色空.
緬想楚江人競渡, 遙憐鄉國信難通.

29) 歐陽修 <六一詩話>: 「能狀難寫之景, 如在目前, 含不盡之意見於言外.」

徘徊永念平生志, 九死寧志孝與忠.

<再用疇係端午韻>

비록 참소를 입어 絶海孤島에 유배되어 있지만, 尤庵은 阮籍의 무리들처럼 豪放曠蕩하거나 술에 취하여 窮途에서 痛哭하는 無節制한 生活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汨羅水에 몸을 던졌던 屈原의 忠魂으로써 平生의 뜻으로 삼으며, 忠孝의 精神을 잊지 않았다.

菊籬蘋浦起芳菲, 嫋嫋秋風吹客衣.

明月一輪臨矮屋, 悄然清坐不思歸.

<八月十四夜示疇係令和>

佳節翻驚剝五陽, 更無餘興引壺觴.

可是興廬昭象戒, 莫令龍轉到玄荒.

<次疇錫九日韻>

앞의 詩는 秋草・秋風・秋月을 끌어와서 「矮屋」과 결합시켜 無窮한 秋興과 安分自樂의 道를 읊었고, 뒤의 詩는 九月 九日の 中陽節을 맞이하여 節候의 無常함과 <易經>에 말한 바의 陰陽 原理를 느끼고, 「龍戰于野, 其血玄黃」, 「龍戰于野, 其道窮」³⁰⁾의 切迫한 情況을 自警하였다.

또한 가을을 맞이하여 더욱 심각하게 危世와 衰容을 근심하고, 疇錫의 앞날을 마음쓰면서 이렇게 읊었다.

獨坐秋山裏, 寒溪日夜鳴.

殘書看來厭, 至理妙難明.

危世愁千斛, 衰容白數莖.

何當携爾去, 登嶽聽鸞笙.

<丁未仲秋小盡示二係>

賦法으로 가을의 感興과 憂愁를 묘사하였고, 아울러 疇錫에 대한 끝없는 사랑

30) <周易>上經. <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象曰, 龍戰于野, 其道窮也.」

을 나타내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無窮한 感動을 느끼게 한다.

臘日今朝至, 蒼茫歲已過.
飢鳥啼古來, 寒雪擁閒愁.
八十年華過, 三千世界憂.
無端思禁直, 叟鬢幾莖秋.

<臘日思疇孫>

看看節序逼新年, 默念初心夜未眠.
籙伯玉非眞可改, 侍臣冠豎不須憐.
義爲路又仁爲宅, 仰益高兼鑽益堅.
坐誦濂翁溪上語, 希賢希聖也希天.

<次疇錫除夕詠懷韻>

앞의 詩는 臘享祭日(秋收感謝祭와 비슷한 民俗祝祭日)의 感興을 읊어서 疇錫에게 주어 尤庵 자신의 自然觀・人間觀・國家觀을 暗示하고 있다. 이 詩에 나타난 風格은 실로 莊嚴曠達하고 雄渾蕭散하다. 「詩 속에 그림이 있다」³¹⁾고 할만하며, 또한 尤庵詩 중에서 白眉의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만하다.

뒤의 詩는 除夜の 送舊迎新하는 때를 맞이하여 過去의 잘못을 省察하고, 未來에 遷善한 뜻을 決心하여서 操心爲學하는 道를 垂範한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言及한 몇 項의 內容을 통해서, 尤庵이 그의 親子(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養孫 疇錫을 사랑한 情況을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與孫戲吟

일반인들이 尤庵先生에 대해 가지고 있는 偏見은 謹嚴敬直한 朱子學者・道學者・哲學家・思想家・禮論家・政治家 등의 硬直乾燥한 人物로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의 詩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는 결코 그렇게 謹嚴敬直하고 乾燥無味한 일면만 지닌 인물이 아니다. 그의 謹嚴敬直한 內面 속

31) 蘇軾 <題王維藍關煙雨圖>: 「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

에는 실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부한 情感과 뜨거운 눈물과 清新한 美觀이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유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戲謔이 있었다.

劉鑰는 「諧는 皆(모두)를 뜻하는 말이다. 말이 淺近하여 大衆들에게 통하니 모두가 즐거워 하며 웃는다」³²⁾라고 諧의 뜻을 말한 바 있다.

尤庵은 <次康節首尾吟韻>에서 「尤庵非是愛吟時」, 詩是尤翁戲語時.(第16)라고 하였다. 이 「戲語」가 바로 「辭淺會俗」하여 「悅笑」를 발하게 하는 말이다.

이 謹嚴硬直한 道學君子도 때로는 戲狎의 感情이 있어서 會俗卑淺한 말로써 사람들에게 悅笑와 新鮮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畏妻無若虎, 視妾莫如花.

威如反身古, 是名爲正家.

<戲吟示驍孫>

이 詩 속에 담긴 뜻은 매우 평범한 것이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悅笑를 발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劉鑰이 지적인 諧謔心理인 「辭淺會俗」의 언어가 가지는 效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尤庵先生은 사랑하는 손자 嚳錫이 妻와 妾을 대하는 態度를 관찰한 바 嚳錫은 正室보다 後室을 훨씬 더 사랑하면서도 차마 그럴 수 없는 良心이 있었는지라 항상 正室을 두려워하여 남편으로서의 威嚴을 유지할 수 없었다. 尤庵은 嚳錫의 이러한 純眞無垢한 心理作用을 간파하고서 한편으로는 즐겁고 우습고 미더우면서도 한편으로는 家庭의 法度を 위해서 마음이 쓰였다.

尤庵은 손자가 正室을 두려워하는 良心을 칭찬할 수도 없었고 꾸짖을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一是一非의 情況에서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부득불 「畏妻若虎」「視妾如花」 등의 會俗淺辭를 써서 어린 손자의 태도를 풍자하였다.

이 詩를 본 嚳錫의 尤庵에 대한 感情과 妻妾에 대한 道理를 상상해 본다면 도대체 어땠을까? 아마도 마음 속으로 悅笑를 지으면서도 祖父의 敎訓을 받아들이 妻妾을 똑같이 사랑하여 남편으로서의 威嚴을 회복하였을 것이다.

尤庵은 兇悍한 두 婦人과 婦人을 두려워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嚳錫과

32) 《文心彫龍》<第十五諧言隱>: 「諧之言皆也. 辭淺會俗, 皆悅笑也」

戲吟한 적도 있다.

河東獅吼聲殊惡, 江左犢車走可笑.
安得龍眠畫二件, 掛之街上令人跳.

먼저 이 詩 속에 인용된 典故의 뜻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河東獅吼聲」: 「宋 陳慥는 字가 李常인데 그의 妻 柳氏가 사납고 질투가 심하였다. 陳慥가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노래하는 妓生이 있었는데, 柳氏가 몽둥이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지르니客이 모두 홀어져 달아났다. 蘇軾이 詩로써 戲弄하되: 「忽聞河東獅子吼, 柱杖落手心茫然」³³⁾이라고 하였다.

「江右犢車走」: <晉, 王導傳>: 「王導의 妻 曹氏는 性品이 질투가 심하였다. 王導가 그를 두려워 하며 몰래 別館을 지어놓고 여러 妾을 머물게 하였다. 曹氏가 그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려 하니 王導는 妾들이 당할까 두려워 하여 급히 수레를 준비하도록 命했다가 너무 늦을까 두려워 잡고 있던 塵尾柄으로 소를 몰아서 달려갔다」³⁴⁾

「龍眠」: <宋史> <李公麟傳>: 「公麟의 字는 伯時인데, 好古博學하며, 詩를 잘 지었고, 그림을 잘 그렸다. 龍眠山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으니 號를 龍眠居士라 하였다」³⁵⁾

이 세 가지 故事의 內容을 참고하여 尤庵이 疇錫에게 諧謔한 뜻을 이해해보면 이러하다.

「河東人 陳慥의 妻 柳氏는 노래하는 妓生에게 嫉妬하여 몽둥이를 잡고 벽을 두드리며 소리치니 그 소리가 獅子吼와도 같이 크게 울렸다. 江左人 王導는 妻 曹氏가 衆妾을 때릴까봐 글을 가르칠 때 쓰는 塵尾柄을 잡고 황망히 牛車를 몰아 달려갔다. 어찌하면 宋代의 화가 龍眠居士 李公麟을 請해서 이 두 가지 故事의 內容을 그림으로 그려, 거리에다 걸어 두고 往來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까?」

33) <中文大辭典>(台灣, 中華學術院) 「河東獅子吼」條.

34) 同上書 「犢車塵尾」條. 「塵尾」는 「塵尾」이니 옛날의 論者들이 청중을 가리키던 도구로서 소를 모는 물건이 아니었다.

35) 同上書 「龍眠」條.

그렇다면, 謹嚴強直한 道學家인 尤庵이 무엇때문에 이 우스운 夫妻關係의 故事를 戲吟하였으며, 또 그것을 손자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대개 위에서 살펴 본 「畏妻無若虎, 親妾莫如花」와 같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諧謔性을 가진 詩가 더 있다.

蓮榜叨爲第一人, 鳳池希作上台臣.

年年又復魁姦黨, 胡乃光華華此身.

<示驍孫仍寄諸友>

尤庵은 이 詩를 짓게 된 背景을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해 봄에 嶺南의 儒生 千四百餘人이 國統을 陰奪한 罪를 바로 잡기를 請하면서 너의 할아버지를 목벨 우두머리라고 하였다. 지금 또 들으니 嶺南人 黃堦가 서울로 이사하여 여러 貴族과 혼인을 맺어 무리를 만들고, 지난 달에 八·九人의 奸邪之狀을 攻斥하는 上疏를 하였는데, 또 너의 할아버지를 우두머리라고 하였고, 또 宰相의 地位를 더럽히려고 했다고도 한다. 비록 좋은 일은 아니나, 돌아보건대 鄙陋한 나를 매양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로 말하니, 심히 부끄럽지만 榮光됨도 많다. 애오라지 朴思菴의 絕句를 取하여 몇 글자 고쳐 疇錫에게 보여 和答하게 하고, 인하여 仲初·永令·持叔·彝仲·重舉·曼倩 등의 여러 벗에게 부쳐서 和答을 求하였다. 丁未 三月 十一日 書」

이 序文을 살펴보면 위의 詩는 南人派와 老論派 간의 黨爭 중에 지어진 實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尤庵이 손자에게 자신을 「魁姦黨」이라고 말하거나 南人派의 공격을 「光華華次身」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諧謔的이라 할 만하다. <序>에서 말한 「너의 할아버지를 목벨 우두머리」 「여러 貴族과 혼인 관계를 맺어 무리를 만들었다」 「너의 할아버지를 우두머리라 한다」 「돌아보건대 鄙陋한 나를 매양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로 말하니, 심히 부끄럽지만 榮光됨도 많다」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가 黨爭의 事實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詩와 序를 읽는 사람은 절로 微小를 發하게 된다.

끝으로 한 首의 詩를 더 보기로 하자.

世人情狀甚於蠅，六一篇中怪獨憎。

若似當時蠅有語，不公之謗似丘陵。

<次疇孫賦蠅韻>

이 詩에서도 또한 「會俗之淺辭」(蠅)를 사용, 人情世態를 諷刺하여 사람들로 하여 웃음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 중에서 특히 「丘陵」이란 말로 「不公之謗」이 많음을 비유한 것이 관심을 끈다.

우리는 이러한 諧謔의 詩를 통하여 이 道學家가 지니고 있는 充滿勃鬱하여 現於外하는 인간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靈活生動하는 尤庵先生의 眞面目을 대할 수가 있다.

四.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意義

앞에서 고찰한 內容에 의거해 볼 때 그 意義는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I. 尤庵의 全體詩 에서의 意義

全體詩 에서의 意義도 數量上의 意義와 內容上의 意義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數量上의 意義를 살펴보기로 하자. 本稿의 緒言에서 이미言及한 바와 같이 尤庵이 남긴 詩는 모두 631題 873首이고, 그 중에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는 82題 94首로서 비율로는 13%를 차지한다.

「尤庵非是愛吟詩」라고 했던 尤庵先生이 이렇게 많은 疇錫과의 酬唱詩를 지은 것은 우연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故意的인 것이었을까? 앞에서 論述한 內容을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必然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數量上의 意義에 대해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內容上상의 意義를 살펴보자. 尤庵은 新儒學의 正統學脈을 계승한 道學家·禮論家·政治家로 항상 自任하고 있었고, 또한 天性이 剛直不屈하여 英雄豪傑의 기상³⁶⁾이 있었기 때문에, 學問의 正邪論爭이나 禮論是非, 南老黨

36) 《宋子大全》附錄卷之十二, 像贊, 金昌協: 「以英雄豪傑之姿, 有戰棘臨履之工, 斂浩氣

爭, 老少分派 等에 있어서 세상과 相合하지 않는 일이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戰棘臨履」³⁷⁾하며 편한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함부로 지어서 남에게 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둘째 손자 疇錫에게 주는 詩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 놓고 吟咏하여 그에게 줄 수 있었다.

吟詩寫出無人見, 幸有兒孫次第酬.
好與平反容罪過, 不相爭競意優遊.
皇天帝伯都爲料, 雪月風月未盡收.
笑問閩翁荒矣戒, 極丁寧後踐言不.
〈吟示疇孫〉

이것은 그의 率直한 告白이다. 무엇때문에 「吟詩寫出無人見」했겠는가? 政敵이 있고, 異端이 있고, 猜忌가 있기 때문에 「吟詩寫出」하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詩를 짓고 써서 남에게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孫子 疇錫은 「好與平反容罪過, 不相爭競意優遊」하는 同志인 까닭에, 皇帝·君王·公侯·伯爵·雪月·風化 등등 어떠한 것이라도 詩材로 삼아 읊을 수 있었고, 함께 鑑賞하고 批評할 수 있었다.

따라서, 尤庵의 詩 중에서 尤庵 자신의 眞率無邪한 情感을 가장 잘 드러낸 詩는 「疇錫과 酬唱한 詩」라 할 만하다.

II. 韓國漢詩史上的 意義

周知하다시피 韓國漢詩의 淵源은 古朝鮮 時代에 시작되었다. 漢四郡·三國 時代를 지나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면 매우 有名한 詩人이 産出되기도 하였다. 朴仁範·崔致遠 등의 賓貢諸生은 그러한 대표적 人物들이다.

그들은 唐나라에 가서 唐의 文風을 學習하였고, 新羅에 돌아와서는 當代에 유명하던 漢詩文을 傳播하였다.

그들 중에 12歲에 入唐하여 18歲에 登第 하고, 高駘의 從事官이 되어 <檄黃

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至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37) 同上註.

巢書》를 지어 이름을 四海에 떨친 孤雲 崔致遠은 《桂苑筆耕集》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韓國漢文學의 鼻祖가 되었다. 그러나 孤雲이 받아들인 漢詩文은 晚唐時代에 流行하던 駢文風의 文學이었다.

이 駢文風은 修辭를 重視하는 文藝樣式이었던 바, 高麗 建國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였다. 그러나 高麗 中期에 이르러 宋으로부터 蘇軾流의 實道主義 古文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세가 점차 꺾이게 되었다.

高麗 中期(武臣執政期)의 代表的 文人인 白雲 李奎報는 主氣論을 唱導하고, 豪放曠達한 文藝世界를 開創하였다. 그러나 元이 來侵하고 高麗가 元의 駙馬國이 된 時期에 이르면, 燕京으로부터 이른바 新儒學(朱子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安珣(1243~1306)으로부터 시작하여 白頤正·權溥·李瑱·李齊賢 등을 거쳐 李穡에 이르면 韓國의 新儒學은 確固不動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牧隱 李穡을 이어 登場한 文人은 두 갈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한 갈래는 圃隱 鄭夢周를 중심으로 하는 高麗의 節義派였고, 다른 한 갈래는 鄭道傳을 중심으로 하여 李氏朝鮮을 세운 革新派였다.

이 兩派의 歷史上의 貢獻을 비교해 보면 革新派는 政治的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學術的 측면에서는 節義派보다 못하였다.

圃隱 門徒인 治隱 吉再는 善山에 隱居하면서 專心으로 後進을 養成하였는데, 그 學統을 江湖 金叔滋(1389~1456)에게 傳하였다. 江湖는 다시 그의 아들 佔畢齋 金宗直(1431~1492)에게 傳하고, 佔畢齋는 寒暄堂 金宏弼(1454~1492)·一蠹 鄭汝昌(1450~1504)·梅溪 曹偉(1454~1503)·濯纓 金駙孫(1464~1498) 등에게 傳하여 朝鮮朝 性理學을 中興시켰다. 이 중에서 寒暄堂은 靜庵 趙光祖(1482~1519)에게 學統을 傳하였는데, 趙光祖 이후에 晦齋 李彥迪(1491~1553), 花潭 徐敬德(1489~1546), 退溪 李滉(1501~1570), 栗谷 李珥(1536~1584), 牛溪 成渾(1535~1598) 등 朝鮮朝의 代表的 性理學者들이 輩出되어 실로 穆陵盛世의 壯觀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韓國의 性理學은 退溪를 主軸으로 하는 嶺南學派와 栗谷을 宗主로 삼는 畿湖學派로 分立하여 發展하였는데, 이 兩派는 서로 精微한 窮究를 하며 絶長補短하여, 마침내 朱子學의 極盛期를 이루었다.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尤庵先生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畿湖學派의 宗

主 栗谷 李珥의 門生인 沙溪 金長生과 그 아들 金集의 弟子였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正統學脈을 傳受할 것을 自任하였고, 자신의 견해와 相衝되는 學派나 政派는 異端賊黨으로 간주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南人과 老論의 相衝, 老論과 少論의 不和는 그러한 代表的인 事例다.

尤庵先生의 思想・學術・政見・禮說・文學 등등은 모두 이러한 歷史的 背景과 學統淵源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도 例外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尤庵先生의 詩世界를 窺探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歷史上・學統上에서의 意義를 이해해야만 한다.

五. 結 言

이제까지 本稿에서는 朝鮮 中期의 代表的 道學家요 禮論家요 文學家인 尤庵 宋時烈 先生의 漢詩 가운데,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에 대해서 몇 가지 問題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지으면 아래와 같다.

I. 尤庵先生이 그의 둘째 孫子 疇錫과 特別히 여러 차례 詩로써 酬唱한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尤庵은 親子가 모두 일찍 죽어 後嗣가 없으므로, 그 親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養孫 가운데 第二孫 疇錫을 사랑하였다.
2. 20餘命의 內外孫 중에서 疇錫의 才能과 氣質이 가장 優秀하였으므로 家統과 學統을 傳授하기 위해서 特別히 사랑하였고 詩로써 學問의 道와 處世의 方法을 훈도하였다.
3. 尤庵은 단순한 祖孫의 관계를 超越하여, 어떤 때는 疇錫을 弟子로 여겼고, 어떤 때는 疇錫을 天下에 유일한 同志로 여겼다. 그래서 때와 장소 事情을 따지지 않고 疇錫과 商量하고 討論하고 돕고, 警戒하고, 告白하고, 諧謔하였다. 「吟詩寫出無人見, 幸有兒孫次第酬」라는 詩句가 바로 그 例證 이 될 것이다.

II.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의 內容은 ①「勸勉學問」, ②「別離懷憶」, ③「玩物感時」, ④「與孫戲吟」 등의 네 가지 項目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勸勉學問」: 孔・孟・周・張・程・朱의 正統儒學을 勸勉하고 老莊・楊朱・荀子・墨子의 異端思想을 배척하였다.

2. 「別離懷憶」: 尤庵은 謹嚴敬直하여 情感을 억제하는 道學家이지만 본래 풍부한 感情과 뜨거운 愛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愛孫 疇錫과 送別할 때에는 感懷를 억제하지 못하고 詩로써 惜別的 懷憶을 읊었다. 이러한 詩에서 우리는 尤庵의 人間本然의 면모를 볼 수 있다.

3. 「玩物感時」: 尤庵은 奇花瑤草・異禽美虫・花朝月夕을 보거나 春夏秋冬의 節候가 변화하는 때를 當하면 항상 疇錫을 생각하고 詩로써 그 情懷를 읊었다. 이러한 詩를 통해서 우리는 尤庵의 眞率素樸한 情感과 高度의 藝術性이 있는 表現技法을 볼 수 있다.

4. 「與孫戲吟」: 尤庵은 疇錫에게 스스로 없이 諧謔的인 詩를 지어 보여 주었다. 특히 疇錫의 妻妾 關係를 題材로 하여 戲吟한 바가 있으니, 그것은 尤庵 자신의 靈活生動하는 精神世界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거니와 疇錫으로 하여금 悅笑를 금치 못하면서도 동시에 夫妻相愛의 道를 깨달아 從來의 錯誤를 고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部類의 詩를 통하여, 尤庵先生이 결코 「一皆從強 制情」하는 道學家・哲學家・思想家로서 狹窄하고 乾燥하고, 硬直되고, 謹嚴한 一面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尤庵이 그 孫子 疇錫과 酬唱한 詩에는 두 종류의 意義가 있다.

1. 尤庵의 全體詩 중에서 차지하는 數量上的 意義와 內容上的 意義가 있다. 數量的으로 全體詩의 13%를 차지하며, 內容的으로는 餘他の 詩에 比해 避隱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가장 眞率無邪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尤庵의 漢詩는 韓國漢詩史上 栗谷을 宗主로 하는 畿湖學派의 儒學精神을 窮揚擴大한 것이라 하겠다.